

E-learning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learning on the Private Education Industry in Korea

김영기*, 서명석**

목 차

- I. 서론
 - II. E-learning의 특성
 - III. 설문조사 결과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e-learning을 통한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learning을 통한 고교의 보충수업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EBS의 수능교육은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교육시장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으로는 EBS의 수능교육의 수요자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ykkim@cbnu.ac.kr, 016-263-0464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seo@Bluesoft.co.kr, 043-217-2369

I. 서론

우편을 이용하여 강의자와 학생간에 교재와 과제를 상호교환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의 형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형태의 효과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더불어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면서 인터넷을 매체로 한 본격적인 e-learning이 강의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off-line 교육의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터넷 교육이 대학이나 기업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의 고속(broad band)인터넷의 가입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가구의 75%에 이르고 있어, e-learning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의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는 그 동안 고교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왔던 사교육에의 지나친 의존이란 문제를 해결코자 2004년 4월부터 EBS의 수능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사교육은 수능교육에 치중되어있으며,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문제풀기 요령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지방과 서울간의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학원의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지방학생들이 대입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명학원들이 서울의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 해서 지방학생의 이주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EBS의 수능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과 또한 EBS의 수능교육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원수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얻어진 조사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학생과 서울학생의 응답결과를 대비하여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E-learning의 특성

E-learning의 장점들 중의 하나로 물리적 강의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은 e-learning 제공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로그인 함으로써 손쉽게 강의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음으로 해서 지리적 자유(geographical freedom)을 갖게 된다. 또한 e-learning은 시간적 자유(temporal freedom)를 가능케 한다. 즉, 본인이 원하는 때에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자 중심으로 결정되는 기존의 강의실 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수강 스케줄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전자도서

관을 이용하여 항상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를 접할 수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역시 지리적, 시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강의를 인터넷에 과제를 올려놓을 수 있으며,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들에게 E-mail을 보낼 수 있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한 지리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e-learning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학생과 강연자간의 상호작용의 부족함이다. 특히 이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IT 기술로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실시간 동화상 강의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작용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려면 인터넷의 광대역화가 필요할 것이다.

III.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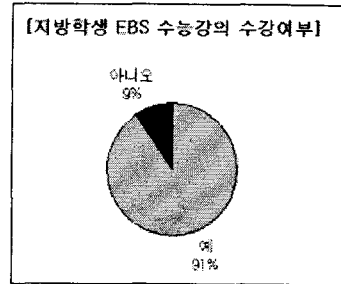
설문 대상은 현재 고3이며 대학진학에 의사가 있는 지방2개 지역, 4개 학교 466명, 서울 2개 학교 132명으로 총 598명이다.

지방은 군산제일고등학교, 청주 중앙여고, 충북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이며 서울은 강남역삼동의 진선여고, 압구정동의 구정고등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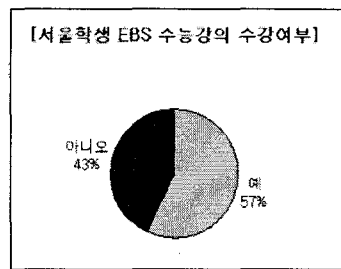
총 문항 수 27개이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된 지방 20여명, 서울 10여명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 현재 대입 EBS 수능강의를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지방학생은 91%를, 서울학생은 57%를 그렇다고 응답하여 지방과 서울에 수강 비율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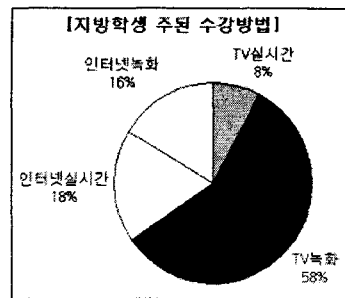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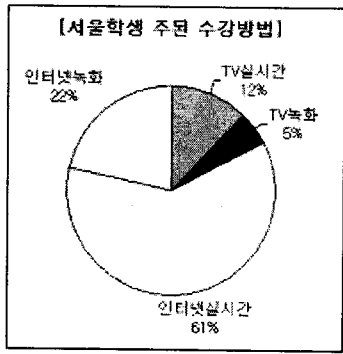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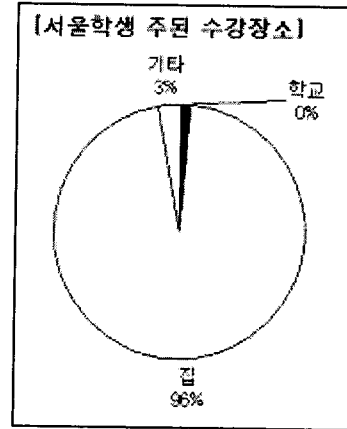
- EBS 수능강의를 청취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된 수강 방법을 물어 보았는데 지방학생은 58%가 TV녹화를, 서울학생은 61%가 인터넷 실시간 수업을 주된 수강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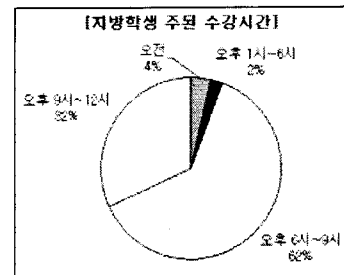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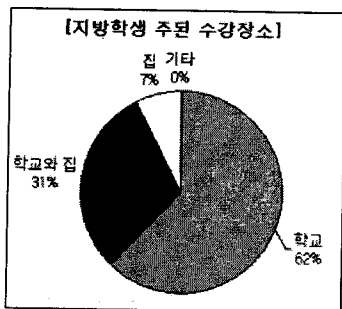
두 번째 응답수가 많은 항목에서도 지방학생은 18%가 인터넷(실시간)을 선택한 반면 서울학생은 22%가 인터넷(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서울학생일 수록 TV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된 수강 시간은 지방학생 62%가 오후 6시~9시를 선택했으며 서울학생 69%는 오후 9시~12시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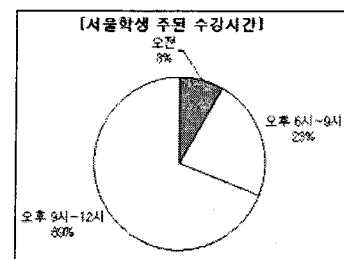
- 주된 수강 장소를 묻는 질문에 지방학생 62%가 학교, 31%가 학교와 집 모두를 선택한 반면 서울학생 96%가 집이라고 응답하여 주된 수강 장소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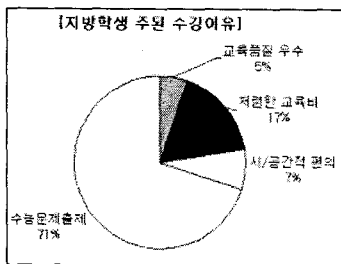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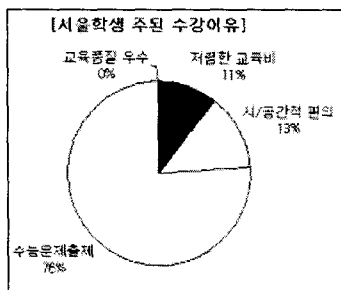
지방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교에 남아 TV녹화를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학생의 경우 늦은

밤 시간대에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EBS 수능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로 지방학생, 서울학생 각각 71%, 76%로 수능문제출제를 꼽았다. 그 외 교육품질이 우수해서, 또는 저렴한 교육비, 시/공간적 편리함을 이유로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그 취지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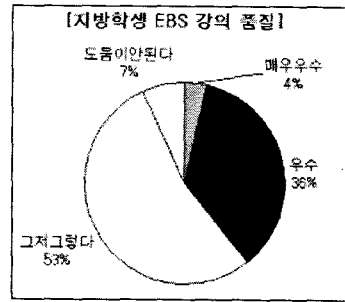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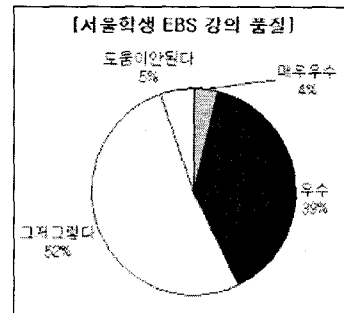


<그림 10>

- 특히 서울학생은 교육품질이 우수해서 수강한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었으며 지방학생의 경우에도 5.2%에 불과했고 EBS 강의 품질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학생 53%와 서울학생 52%가 그저 그렇다고 답해 강의품질에 불신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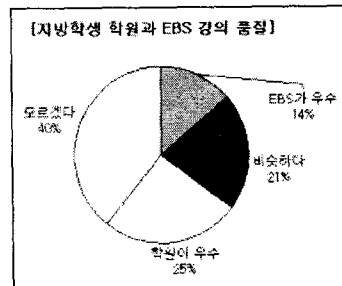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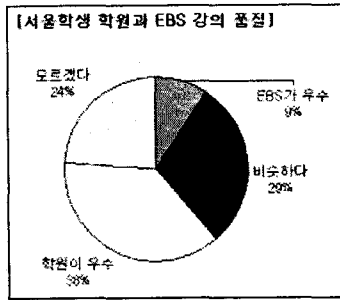


<그림 12>

- EBS 수능강의 품질을 기존학원 강의와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거나 학원이 우수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EBS 수능강의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은 지방학생이 14%, 서울학생이 9%로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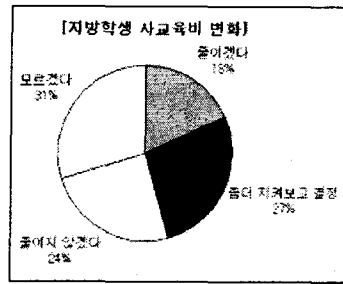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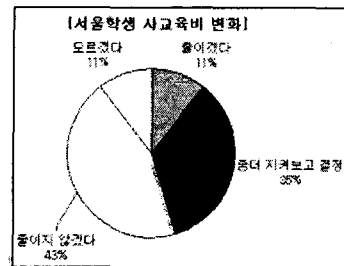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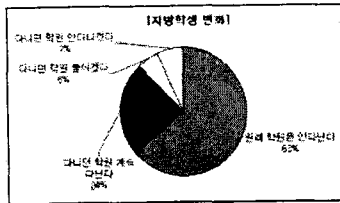
- EBS 수강 후 기존학원의 수강에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지방과 서울학생 모두 압도적이었으며 다니던 학원을 줄이거나 다니지 않겠다는 응답은 지방학생 각각 6%와 7%, 서울학생 각각 11%와 3%에 불과하여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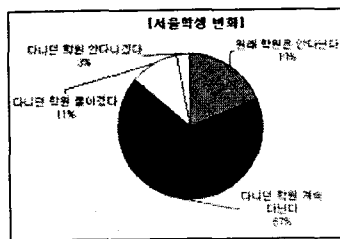
〈그림 17〉



〈그림 18〉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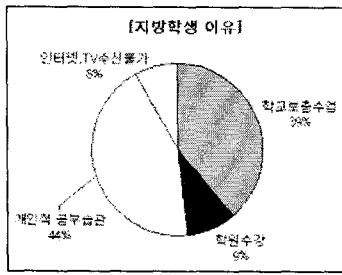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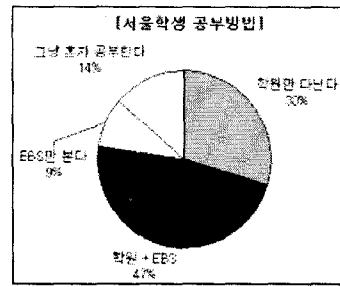
- 학원수강은 물론 과외까지 포함하여 EBS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을 줄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방학생 18%, 서울학생 11%만 줄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줄이지 않거나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 같은 내용의 강의를 온라인(EBS 강의)과 오프라인(학원 강의)으로 비교하는 질문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에 비해 약간 우세한 응답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어 비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지방, 서울 각각 48%, 64%로 가장 많았다. 즉, 강의 품질을 높이고 온라인 강의에 장점을 잘 살린다면 e-learning 시장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응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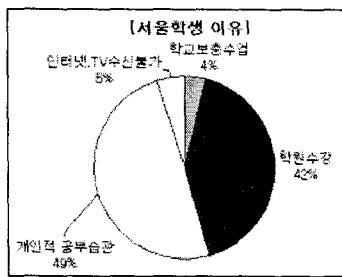
- EBS 수능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방학생, 서울학생 모두 개인적 공부습관을 첫 번째 이유(각각 44%, 49%)로 꼽았으나 지방학생의 경우 학교보충수업(39%)을 다음으로 꼽은 반면 서울학생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을 42%로 꼽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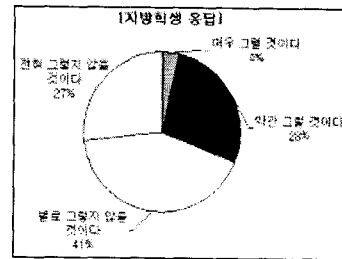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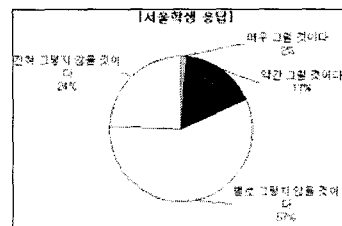
<그림 20>

- 현재 학교 수업 이외에 공부 방법으로 지방학생은 그냥 혼자 공부한다는 응답이 45%, EBS만 본다는 응답이 32%인 반면 서울학생은 학원과 EBS를 병행(47%)하거나 학원만 다닌다(30%)를 응답했다. EBS 수능강의가 지방이든 서울이든 학원의존도에 변화는 크게 가져오지 않았으나 어차피 학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던 지방학생의 경우 EBS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서울학생은 학원의존도가 크며 대부분 EBS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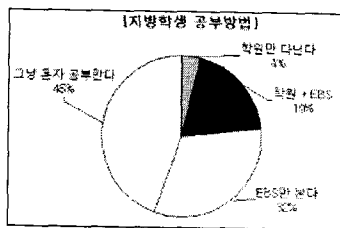
- EBS의 수능 강의가 유명한 학원 강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지방학생의 68%, 서울학생의 81%가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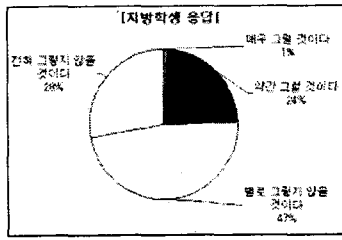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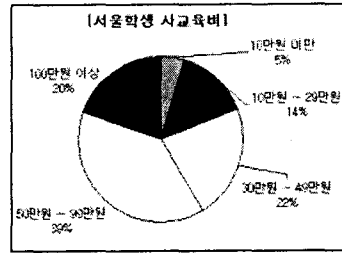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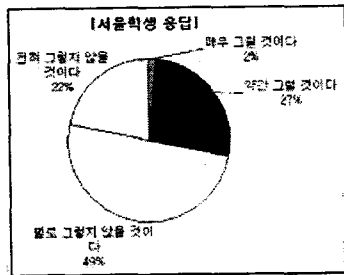
이런 부정적 의견과 맥을 같이하여 EBS 수능 강의로 인해 서울-지방간의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방학생, 서울학생 모두 각각 75%, 71%가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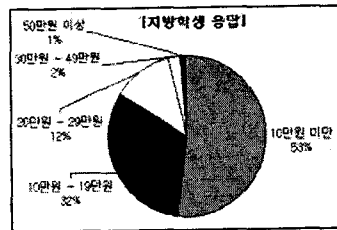
〈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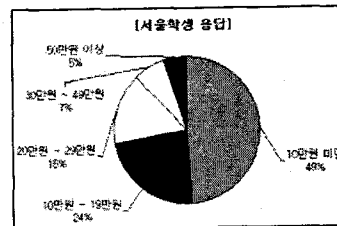
〈그림 26〉

- EBS 수능강의로 인해 줄일 수 있는 사교육비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학생, 서울학생 모두 10만원 미만이 각각 53%, 49%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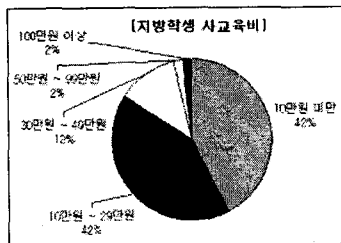
- 사교육비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학생과 서울학생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방학생의 경우 10만원 미만과 10만원~29만원 사이가 각각 42%, 전체 84%의 응답이었으나 서울학생의 경우 50만원~99만원 사이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20%에 달해 5명중 1명꼴로 사교육비 지출이 월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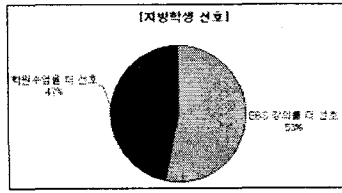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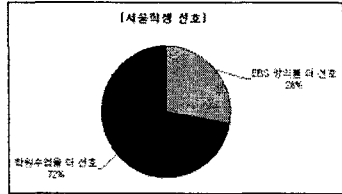


〈그림 27〉

- e-learning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려고 다시 한번 백일의 문제로 같은 내용이라면 EBS 강의와 학원 수업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학생의 경우 53% 대 47%로 EBS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으나 서울학생의 경우 28% 대 72%로 학원수업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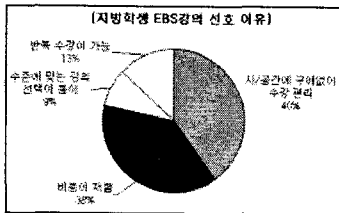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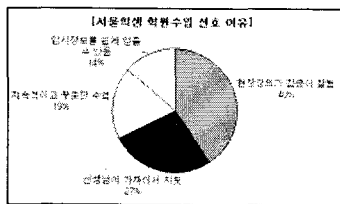


〈그림 32〉

EBS를 더 선호한다는 지방학생의 경우 그 첫 번째 이유로 시/공간에 구애 없이 수강이 편리하다는 점과 두 번째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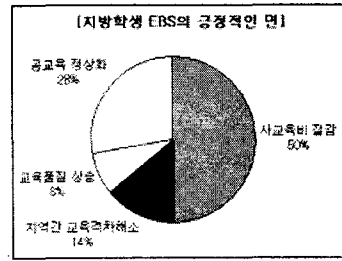


〈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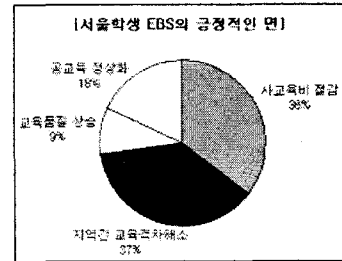


〈그림 34〉

- EBS 수능강의의 긍정적인 면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학생의 경우 첫 번째 이유로 사교육비 절감 (50%)을 꼽았으나 서울학생의 경우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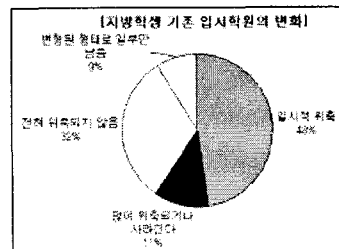
〈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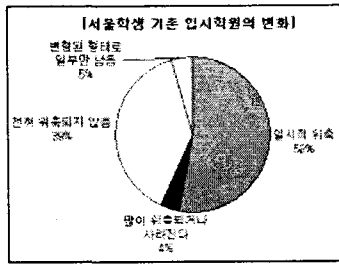
〈그림 36〉

서울학생은 지역간 교육격차가 크며 EBS 수능강의와 같은 전국적인 온라인 강의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생각하나 지방학생의 경우 지역간 교육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EBS 수능강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BS 수능강의로 인해 기존에 입시학원들은 일시적으로 위축되거나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지방학생과 서울학생 각각 80%, 91%로 변형된 형태로 살아남거나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장기적으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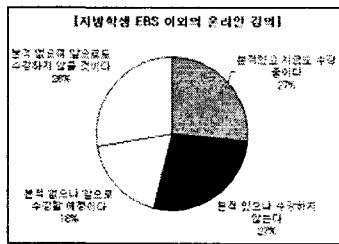


〈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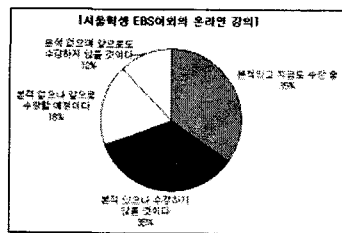


〈그림 38〉

- EBS 수능강의 이외에 온라인 강의 수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적이 있다는 대답은 지방학생 54%, 서울학생 70%이었고 그 중에 지금도 계속 수강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7%, 35%로 응답했다. 특히 지방학생의 경우 다른 온라인 강의는 본적 없고 앞으로도 수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28%로 가장 많은 반면 서울학생은 12%로 가장 적은 답을 해 비교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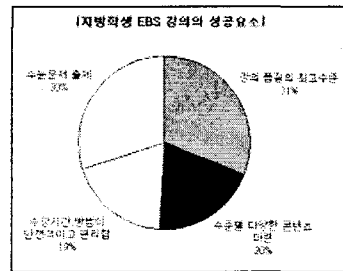
〈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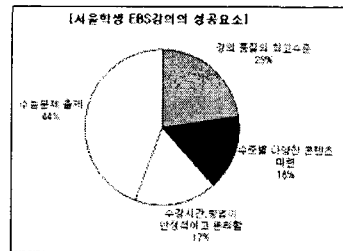
〈그림 40〉

- 유명학원에서 우수한 강의를 EBS처럼 온라인에서 실시한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방학생은 수강료를 낸다면 대체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서울학생의 경우 수강료를 내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 EBS 수능 강의가 성공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고르라는 질문에 지방학생은 강의 품질의 최고수준과 수능문제 출제를 유사한 비율로 꼽은 반면 서울학생은 수능문제 출제를 중점적으로 꼽아 지방에서 좋은 강의를 듣기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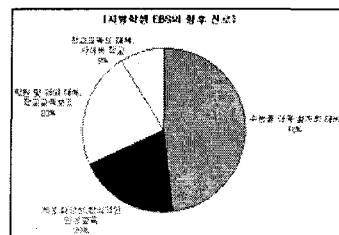


〈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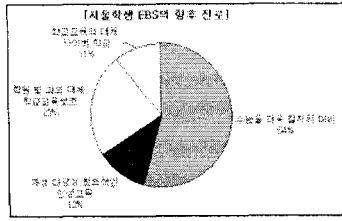


〈그림 42〉

- 향후 EBS 온라인 강의가 나아갈 방향을 지적해 달라는 질문에 역시 수능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지방학생이나 서울학생 모두 압도적이었으며 개성, 다양성,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선택한 비율은 지방학생이 19.7%인 반면 서울학생은 11.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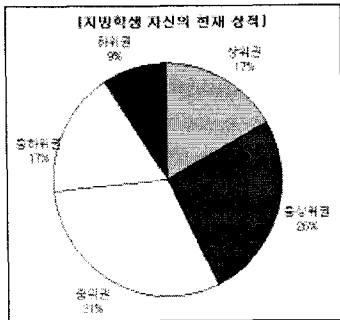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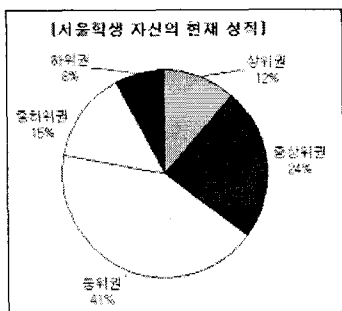


〈그림 44〉

이번 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598명이며 여학생이 201명, 남학생이 397명이며 성적분포는 상위권과?중상위권이라 답한 학생이 약 40% 내외로 대체로 자신의 성적을 조금 높여 응답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5〉



〈그림 46〉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EBS의 수능교육이 국내의 사교

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방과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응답결과는 지방과 서울을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방과 서울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EBS의 수능강의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수능문제 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E-learning이 갖는 장점, 즉, 지리적 시간적 자유보다는 수능문제 출제에 기대를 하는 것은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품질에 대한 낮은 평가, 방송 시간대에 대한 불만, 수준별 교육 커리큘럼이 부족하여 실제 들을 강의가 없다는 불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서울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원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명학원의 강사의 강의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지방학생들은 EBS의 수능강의에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마치 지방학생이 e-learning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나 사실 e-learning에 대한 경험이나 호감은 서울학생이 지방학생보다 높았는데 서울학생은 비용보다 좋은 품질의 강의를 기준으로 삼았고 지방학생의 최우선 기준은 비용발생으로 응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학생들의 선택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EBS의 수능강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교환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강의 수준 평가가 낮은 이유로 수준별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획일화된 강의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서울학생들은 지역간 교육격차가 크며 EBS 수능강의가 이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생각하는 반면 지방학생들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 서울 학생간의 응답결과를 대조하는 것에서 그쳤으나, 설문조사결과는 다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고 더 풍부한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EBS의 수능강의의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가름해보는 추가적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